

# 사람의 전통 하나님 계명

QT는 Quiet Time의 약자로 매일 조용한 시간과 장소를 정해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고, 성경 말씀을 통하여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묵상하며 삶에 적용함으로써, 삶의 변화와 성숙을 이루는 경건 훈련입니다.

## 01 찬양과 기도



<오늘의 찬송>을 드리며 하나님께 마음을 활짝 열고, 기도하며 내 안에 있는 인간적인 염려를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간절함과 사모함으로 나아가십시오.

420

너 성결키 위해

(통 212)

W. D. Longstaff, 1882

 성령 받고 기도하라  
(산전 5:17)

 HOLINESS: 6.5.6.5.D.  
G. C. Stebbins, 1890

조용히로

1. 너 성결키 위해 늘 기도하며  
2. 너 성결키 위해 늘 네 머리 숙여  
3. 너 성결키 위해 늘 주 따르고  
4. 너 성결키 위해 늘 기도를 하

너 주 안 에 있 어 늘 성 경 보 고  
저 은 다 밀 히 계 신 네 주 께 발 고  
일 내 소 급 하 여 도 당 황 치 말 라  
내 소 원 을 주 께 다 탕 기 어 라

온 주 형 제 들 합 께 늘 사 귀 면 서  
참 너 를 귀 어 살 때 주 담 으 리 나  
너 성 경 을 받 아 주 섬 겨 때 면  
너 생 살 을 받 아 주 섬 겨 때 면

일 널 하 기 전 마 다 너 기 도 하 라  
저 보 는 이 마 다 주 생 각 하 라  
너 주 만 믿 가 고 주 생 파 람 기  
저 천 국 에 가 서 너 잘 섬 기 라

Take time to be holy

성결한 생활



본문 말씀을 2~3회 읽은 뒤 문맥을 고려해 본문을 읽으면서 특별히 마음에 와닿는 말씀 또는 의문이 생기는 말씀에 밑줄 긋고, 그 말씀을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십시오.

- 1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 2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 3(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 4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음이라)
- 5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 6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 7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 8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 9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 10모세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 11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 12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 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 13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 14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 15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 16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 17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대
- 18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 19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 20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 21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 22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 23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제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대화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왜 내게 그 말씀을 주셨는지, 내가 무엇을 깨닫기 원하시는지 질문하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 내용을 여백에 기록하십시오.

## 04 적용하기



묵상을 통해 주신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 말씀은 나의 잘못에 대한 지적이나 내게 주시는 격려,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한 인도 등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구체적으로 적용하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일

## 05 기도



묵상을 통해 주신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 말씀은 나의 잘못에 대한 지적이나 내게 주시는 격려,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한 인도 등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구체적으로 적용하십시오..

나의 기도

본문 : 마가복음(Mark)7:1 - 7:23 찬송가 420장

예수님은 사람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외식을 책망하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6-8절 내면의 동기를 들여다보시는 분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추구한 '장로의 전통'은 모세율법에 대한 율법학자들의 해석을 규범화한 것으로, 유대 사회에서는 율법만큼 구속력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비록 선한 동기에서 시작되었어도 사람들은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장로의 전통'을 '사람의 전통'이라고 달리 표현하십니다. 그들에게는 신앙 규범을 철저히 준수하는 경건의 '모양'은 있었지만, 온 마음과 온 뜻,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나는 어떤 마음으로 신앙 규범을 지키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체를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1-5절 종교 지도자들은 장로의 전통으로 사람들을 속박했습니다. 거처도 변변치 않은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제의적으로 정결을 유지하는 것이 버거운 일이지만,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그런 고려가 전혀 없었습니다.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라 율법의 정신인 '사랑'을 버린 까닭입니다. 우리에게도 믿음의 선조들에게 물려받은 좋은 신앙 유산들(새벽기도, 금식, 철야기도 등)이 있습니다. 이것을 개인의 경건과 이웃 사랑의 방편으로 삼는다면 좋은 것이지만, 이웃의 신앙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도구로 사용한다면, 우리 역시 외식적인 신앙에 갇힐 수 있습니다.

9-13절 전통의 악용은 '고르반'을 실천하는 방식에서 잘 드러납니다. '고르반'은 하나님께 바친 물건을 지정하여, 부모가 그 물건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관행입니다. 고르반이 표상하는 거룩한 정신은 그들의 악한 의도를 그럴듯하게 포장하는 입에 발린 말일 뿐입니다. 혹시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 말씀이나 신앙 덕목을 이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14-23절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속임수, 비방 등은 모두 이웃 사랑에 해당하는 5-10계명과 관련된 것으로, 예수님은 이런 죄의 뿌리가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온갖 더러운 것을 마음에 방치한 채, 겉만 씻는 것이 외식입니다. 겉만 꾸미는 종교 관행을 실천하기에 앞서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마음부터 정결하게 하는 일이 우선입니다.

기도

공동체-위선적인 태도를 버리고 말씀을 따라 신앙의 본질에 충실한 삶을 살게 하소서.

본문 : 마가복음 6:45-56

핵심질문 : 기적을 경험하고도 제자들은 왜 여전히 믿지 못하였을까?

### 도입

기적은 초자연적인 현상만이 아니다. 온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주님의 역사이니 사실은 다 초자연적인 일이다. 다 기적이다. 하지만 기적을 기적으로 보는 눈이 열리지 않으면 기적 앞에서 저절로 믿음임 생기지 않는다. 기적이 믿음을 낳으려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 본문

기도하러 물러나시다.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신다. 자신을 왕 삼으려는 자들의 기대를 꺾으신다. 양들의 그릇된 기대와 환산에 절망을 주신다. 그렇게 할수록 기적은 예수님께 믿음을 준다. 기적으로 자신을 치장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

### 두려워하는 제자들

예수께서 기도로 세상의 헛된 기대와 싸우실 때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서 거센 바람과 싸우고 있었다. 물위를 걸어 찾아온 예수님을 제자들은 몰라 보고 두려워 한다. 예수님을 확인하고도 놀란다. 그들에게 기적은 기적일 뿐이었다. 기적이 가리키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다.

### 마음이 둔한 제자들

물위를 걸어온 분이 예수라는 것을 확인하고도 제자들은 반응은 놀라움에 그친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보여준 예수님이 참된 정체를 깨닫지 못한 것이다. 그가 한 일이 모세가 광야에서 만나를 준 일이라면 물위를 걸어온 것은 홍해를 잠재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했다.

### 결론

오병이어의 기적도 물위를 걸어와 바다 위에서 제자들을 구원해준 일도 모두 하나님이 아니면 하실 수 없는 일인것을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다. 좀더 능력있는 선지자 정도로 여겼을 뿐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상상도 못했다. 모든 기적이 다 믿음으로 이끌지는 못한다.